

2017년 5월 4일, 조천읍 함덕리 함덕1구경로당, 강수경 조사.

손윤희(여, 1935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- 줄거리: 할아버지 집에서 탕건을 할 때 할아버지가 졸지 않도록 옛말을 들려주거나 글을 배워줬다. 천자문을 배우고 있을 때 조금 정신 이상한 할아버지가 밖에서 지나가다가 '늙은 로, 젊을 소, 식량 식, 다를 소.' 라고 하였다. 그 이상한 할아버지는 글공부로 미친 사람이었다.

[제보자] “야, 좀자지 말라. 나 옛말 골아주켜.”

영 허주게. 경 허민 장화홍련이여 춘향전. 그런 그 옛날 역사에 대한 그 노래덜, 허는 것덜 막이 배운 것은 우리 하르버지는 없어도 머리가이 비상헤여. 경 행 헌디 그걸 이거 다 우리 좀자지 못허게시리 헤영 탕근 허는디. 총도 영 행 골라주곡. 경 헤영그네영 혼저 크라 허영 허당 뒷날은 스장 하르바지가 허는 말이

“나 손지덜 나 잇인 때 글 혼 제라도 배우라.”

경 행 허믄 이젠 하르바지네 집이 다섯 거리라. 막 부제로 살안이. 경 행 헌디. 스장 하르바지네 집이 간, 하늘 천 따 지, 가물 현 누르 황 헤영 익어가믄, 그 호꿈 정신 돌아분 하르방이 덩기다그넹 이제 맨 막꿇덴.

“늙은 로, 젊을 소, 식량 식, 다를 소.”

영 헨 하르버지가 배와주믄, 그 하르방이 영 넘어가멍 허는 말이,

“늙은 놈, 젊은 놈 양식 쌍 돈는 놈.”

허난,

“저디 강 보라, 누게가 잇이니?”

경 행 강 보믄 그 하르방이라. 그 머리 돈 하르방. 경 헤영 그 하르방이 막 글을 잘 헤낫젠. 옛날. 게난 그 하르방 허나네. 그 우리 말젯하르바지주게. 스장 하르바님. 아덜 다섯, 풀 성제. 겐디 신흥 마을에 전부 살앙. 춤 혼 반에 살다시피 헤여 그네 산 디 그것이 난 오래도록 난 기억이 나. 하르버지 허는 말해준 것광 배워준 것광. 언제 호야 하시 좋고. 맨 막 끝에 하늘 천 따 지 읽다그네영 보믄 그 두 가진

난 잊어볼지 안 해. 이제도.

[조사자] 맨 마지막에 아까 뭐마씨?

[제보자] 언제 호야 하시 좋고. 그것이 한문으로 된 건디. 난 해석을 못허주게. 해석을 못허여. 게난 이젠 나이도 여든넷이고. 경 허고 우린 조천 초등학교 26회 졸업생인디. 날 존 날은 출 비레 가곡 당오름 강 출 지영오곡. 비온 날은 학교 가곡 허난 무슨 시험을 봐게. 글 혈 충도 몰르고 학교 무똥에만 간디 삼 학년으로 부떠서. 해방 후에. 해방 후에 삼 학년으로 부튼디 어떻 허당 보든 그 우리 김시황이 선생이라고 우리 고모부라.

우리 아버지 육춘 누이 서방. 경 행 허든 학골 아니 보내가난 우리 집일 와.

“우리 어머니 큰아주마니 유희허고 유아라그네랑에 학골 보냈이민 공불 잘 험 직헌 디 무사 학골 안 보냈우가?”

허든. 가이네 엇어불민 이 검질 누게가 다 메어그네엥 이제 공불 학골 보내여 못 보내여. 게민 이젠 날 존 날은 당오름 강 쉼출 비영 오곡. 비온 날은 이젠 조천 학골 갈 거라. 드뽏동산으로. 신흥으로 드뽏동산 넘어그네엥. 경 행 가든 시험은 보든 백지 답안질 내주게. 경 해도 우리 시황이 선생님이 졸업장은 주언. 졸업장은 주언. 경 행 헌디이 이제도 생각허든 그 하르버지가 늙을 로. 젊은 소. 양식, 식량 식. 다를 소. 영 헌 거 잊어볼질 안 헤져.

[조사자] 옛날에 막 글에 미쳐난 걸 글귀신?

[제보자] 글귀신 미친 하르방이 경 글은 거라이. 글이 너무 뛰어나게시리 허든 아마 뇌가 이상해부는 생이라게.

[조사자] 너무 빠정.

[제보자] 너무 빠정. 경 행 들은 말이 잊주게.

[조사자] 아. 좋수다.

- 핵심어 : 글 공부, 미친 사람, 옛말, 글귀신, 할아버지, 탕건, 한문